

지역 소식통

정읍시,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교육 교육생 모집

정읍시가 신규 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기초영농교육을 운영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귀농·귀촌인에게 기초영농 기술교육으로 성공적인 농촌정착과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영농을 목적으로 정읍시에 전입한 귀농·귀촌인 또는 귀농·귀촌 예정자로, 신청기간은 이달 18일부터 8월 16일까지다. 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4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모집인원은 30명 내외이다. 교육내용은 신규농업인에게 필요한 기초 영농기술과 성공 영농정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민장학재단, 인제육성 장학생 150명 모집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이학수 정읍시장)이 정읍의 미래를 이끌아갈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총 150명으로 장학금 지급액은 4년대상(117명) 220만원, 전문대상(33명) 180만원이다. 장학생은 정읍시민장학재단 선발기준에 따라 성적과 생활 정도를 평가해 선발한다.

선발 대상은 공고일(7월 13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국내 대학교 재학생이다.

신입생(복학생 포함)의 경우 2023년 1학기 백분위 환산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 재학생의 경우 2022년 2학기와 2023년 1학기 백분위 환산 점수가 각각 90점 이상인 학생이다. 예·체능 특기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 이내, 도내대회 1위 입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학기별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관계인구 확대 시동

서울시 50+세대 대상 '2023년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사업 추진

정읍시가 관계인구(생활인구)를 늘리기에 나섰다.

정읍시는 지역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알리고, 지역에 관심 있는 관계인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50+세대(만40~65세)를 대상으로 '2023년 농어촌 워킹홀리데이 in 전북'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어업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서울시 중장년을 지역 내 기관 및 경영체에 배치해 기관(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울시 중장년에게는 일 경험(일자리) 활동과 지역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읍시는 지난 17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50+세대 10명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을 진행했다.

참여자 10명은 앞으로 2개월간 정읍에 체류하면서 지역을 탐방하고 지역



내 기관 또는 기업에서 홍보 컨설팅, 관료개혁 등 경영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정읍시는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고창·쌍기 부제 참여 독려, 치유농업·문화관광 시설 확충 등 관계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우리 지역의 여건 등 여러 부분을 검토했을 때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이라 생각한다"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도·농간 상생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농업재해 복구지원 조례제정... '농업인 경영안정'

고창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통해 군비 지원

고창군이 전북도에서 두 번째로 농업재해시 피해 농민들에 대한 피해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골자한 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창군 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내에서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보조 및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 농민들에게 피해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조례안은 제정목적, 지원대상, 지원제외, 위원회 구성, 피해 발생 신고,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지원금 결정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고창군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를 통해 군비 지원 비율을 당초 15%에서 25%로 상향해 자연재해 발

생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농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심하며 영농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베트남 까마우성 대표단, 부안군 방문

베트남 까마우성 응우옌 꾸옥탄 노동보훈사회국장 등 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 일행이 지난 17일 부안군을 방문해 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안군을 방문한 까마우성 대표단은 지난해 5월 23일 부안군과 베트남 까마우성이 맺은 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협약사항을 논의하고 부안군 내 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의 농가 현장을 방문하였다.

부안군은 지난해 5월 23일 베트남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의 농촌 인력증가센터 설치와 11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하는 등 도움을 보고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군민행복 · 활력고창 위해 선한 영향력 발휘할 것"

심덕섭 군수, 제2대 일일 명예 청년군수로 정승환씨 위촉

고창군이 18일 제2대 일일 명예 청년군수로 정승환(30세·(주)DS농업연구소 대표)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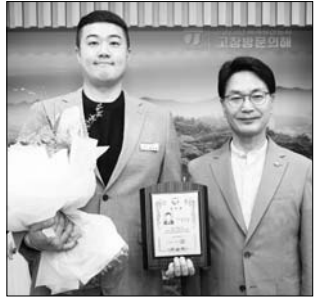
정승환 명예 청년군수는 이날 심덕섭 군수와 위촉식 후 업무보고에 참여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했다.

정승환 명예 청년군수는 업무보고에서 민선8기 고창군의 대표청년공약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상향지원 △청년 농림축수산업 기업승계 활성화 △청년 주택공급 확대 및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년 창업플러스터 조성 등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평소 관심있는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상황을 살피고 업무 현황을 경험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명예 청년군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활발한 참여와 소통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승환 제2대 명예 청년군수는 "고창군에서는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부터 주거 혜택까지 농업 분야 외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청년에게는 희망을, 지역주민에게는 행복을 주는 활동의 일환으로 역동적인 정책 참여를 이어나가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명예 청년군수 제 시행으로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내는 소통 창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고창군이 18일 오전 2층회의실에서 심덕섭 군수 주재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민선8기 1년차를 맞아 지금까지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토론했는 자리로 진행됐다.

군은 지난해 6대분야 15대전략 80개 과제의 공약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을 세웠다. 이후 1년여간 △고창군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교목약자 1천원 택시 운행 확대 △김장병 전담조직 강화 △집고 빠른 규제개혁 원스톱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완료했다.

또 △르노·호텔 등 대형숙박시설 유치 △고창 나들목 공원 조성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군민 여가생활 증진 사업 △소상공인 융자 지원 확대 △내

외국인 농촌 인력지원센터 설치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조성 등 지역경제와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75개 사업은 정상 추진으로 분류됐다.

이중 착수하지 못한 '연안비대륙상 조성사업' 역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중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4월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 실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민선8기 공약 이행평가단 30명을 위촉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정승환 명예 청년군수를 초청해 함께하는 등 소통행정의 모습을 보여줬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더욱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진행과정은 적극 홍보해 군민과 함께하는 공약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